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새 세기 우리 민족이 철저히 리행하여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

문 영 호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의 길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같은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 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면 전체 조선민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새 세기 우리 민족이 철저히 리행하여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자주적 원칙을 뚜렷이 밝혀주기때문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는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자주적 원칙을 견지할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주장하여온것은 민족자주적 원칙이다. 그런것만큼 북남공동선언에서는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며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며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민족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의식이며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측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민족자주나 외세의존이나 하는것은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누구도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고 침해할수 없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여 자기의 침략적,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그 어떤 외세의 책동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룡락물로 내맡기는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여야 한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이 량립될수 없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아무리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부닥쳐도 조국통일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고 견인불발의 의지와 투쟁으로 자주적 길로 변함없이 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새 세기 우리 민족이 철저히 리행하여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거기에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도가 명확히 밝혀져있기때문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뉴대와 혈맥을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그런것만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단결은 승리의 전제이고 분렬은 패배의 요인이다. 단결은 민족이 통성변영하는 길이며 사분오열은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 그런것만큼 민족을 이루는 모든 계급, 계층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

더우기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어나가는 현 력사발전단계에서는 마땅히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세계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로 나선다. 분렬이 계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념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 단결에 대하여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다 조선민족으로서의 념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풀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다.

반만년의 력사를 면면히 이어오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있을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전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반

드시 실현하려는 일치한 지향과 요구가 바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반영되어있다.

통일이 애국이고 분렬이 매국이듯이 민족의 대단결, 대단합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 살든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현실은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된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강화해나간다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앨뿐 아니라 분렬주의자들의 교활한 리간, 와해책동에 대하여 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해나간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비록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을 가지고 전 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반드시 열어나가야 할것이다.